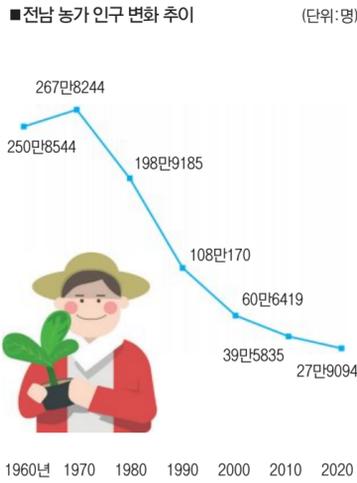


'시골 농부' 줄고 '도시 농부' 늘었다

지난해 전남 농가 인구 30만명 붕괴...고령 비중 20년째 '전국 최다' 광주, 5년 전보다 9200명 늘어...서울 93.3% 등 특·광역시 증가세

농촌 이탈과 고령화 가속화로 지난해 전남 농가 인구 30만명 선이 무너졌다. 전남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중은 20년째 전국에서 가장 높다. 통계청이 지난 27일 발표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농가 인구는 27만9094명으로, 직전 조사인 2015년(31만8848명)보다 12.5%(-3만9754명) 감소했다. 5년 새 4만명에 달하는 농가 인구가 빠져나간 것으로, 처음 조사가 벌어졌던 1960년에 비해서는 무려 88.9%(-223만명) 감소했다. 전남 농가 인구는 60년 전인 1960년 250만8544명에서 1970년 267만8244명으로 늘더니,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된 지난 1980년 198만9185명으로 '200만 선'을 밑돌았다. 이후 1990년 108만170

명, 1995년 74만8436명, 2000년 60만6419명, 2005년 47만7611명, 2010년 39만5835명, 2015년 31만8848명, 지난해 27만9094명으로 급격한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해 농가 인구는 경북이 35만1643명으로, 전체 농가 인구 231만6933명의 15.2%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경기 농가 인구가 31만3121명(13.4%)으로 뒤를 이었고, 전남(27만9094명), 충남(26만6755명), 경남(25만9939명), 전북(19만9264명), 강원(15만1490명), 충북(14만7819명), 제주(8만141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 농가 인구는 1980년 조사 때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지난 1990년 경북에 1위를 내주고 지난 2010년부터는 경기도에 이어 3위로 물러났다.



전남 농가 인구는 급격하게 줄었지만 광주를 포함한 '도시 농부'는 늘었다. 지난해 광주 농가 인구는 3만9958명으로, 5년 전(3만746명)에 비해 30.0%(9212명) 증가했다. 서울(93.3%)과 대구(36.4%), 부산(35.6%), 대전(28.6%), 울산(18.3%), 세종(4.3%) 등 인천(-0.9%)을 제외한 7개 특·광역시 농가 인구가 증가했다. 지난해 전남 농가 인구의 절반 가량(48.8%)은 65세 이상 고령자로, 그 비중이 역대 최대였다. 농가 고령인구 비중은 지난 1995년에는 경북이 가장 높았지만 2000년 이후 20년 동안 전남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전남 농가 인구의 48.8%에 달하는 13만6228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고령인구 비율은 1995년(17.5%)→2000년(24.5%)→2010년(34.4%)→2015년(38.7%)→2020년(45.9%)→48.8%(지난해) 등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전남 농가 인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36.2%(10만902명)로 가장 많고, 60대 26.4%(7만3620명), 50대 16.4%(4만5854명), 40대 7.0%(1만9510명), 15~29세 6.1%(1만6985명), 15세 미만 4.4%(1만2312명), 30대 3.6%(9911명) 순으로 높았다. 고령 농업인이 많은 전남은 가구원이 한 명 뿐인 농가 수도 많았다. 전남 전체 농가 13만6436가구 가운데 26.8%에 달하는 3만6606가구가 1인 가구였다. 이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 20%를 훌쩍 넘었다. 지난해 전남 여가 인구는 3만5534명으로, 전체(9만7954명)의 36.3%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5년 전 여가 인구 4만3818명에 비해서는 18.9%(-8300명) 감소했다. 울산과 인천을 포함한 11개 시도 여가 인구 증감률을 비교하면 전남 감소율이 가장 작았다. 전국 여가 인구는 2015년 12만8352명에서 지난해 9만7954명으로 23.7%(-3만400명) 줄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효성·효성첨단소재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선정

효성첨단소재는 28일 열린 '2020 CDP 기후 변화 대응-물 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Carbon Management Honors Club) 및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Carbon Management Sector Honors)를 수상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효성은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수상기업으로 선정됐다.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는 2020년 CDP평가에서 해당 분야 최상위 등급을 달성한 기업에 수여되는 상이다. 효성첨단소재와 효성은 원자재 분야에서 각각 A등급, A-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효성첨단소재는 업종을 망라해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들 중 3위로 선정돼, 최상위 5개 기업에 수여되는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에도 선정됐다. CDP는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비영리 기관으로, 91개국 주요 상장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탄소경영전략 등을 공개해 기업에 투자하는 연기금 등 주요 금융기관들에게 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효성과 효성첨단소재는 최고경영진이 직접 주관하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등 그린경영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과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조 현장의 환경영향을 최소화



28일 열린 '2020 CDP 기후변화 대응-물 경영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를 수상한 효성과 효성첨단소재 관계자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기 위해 친환경 설비 및 장치 투자, 친환경 공법·공법 적용에 노력해왔다. 또 사용 단계에서의 배출량 감소를 위해 각 사업부별로 경량화 제품, 친환경 소재 개발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왔다. 황정모 효성첨단소재 대표이사는 "세계 1위의 제품을 보유한 글로벌 소재기업으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법안까지 배출량 관리 영역을 확대하겠다"며 "이번 수상을 발판으로 삼아 적극적인 배출량 저감 활동을 통해 탄소 저감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백기용 기자 pboxer@

한전 '기후변화 대응 우수' 5년 연속 수상

한국전력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인정받아 CDP 한국위원회 주관 '2020 기후변화 대응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5년 연속 수상했다. 한전은 28일 열린 이 시상식에서 '에너지&유틸리티 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5년 연속 수상자에 이름을 올리며 한전은 탄소경영 분야 우수 기업임을 증명했다. 이날 금융, 산업재 등 7개 부문으로 구성된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에는 총 18개 기업이 선정됐다. 한전은 에너지&유틸리티 부문에서 지속적인 탄소경영 노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515개 투자기관의 요청으

로 9600여 개 기업이 자사의 탄소경영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한전은 지난 2008년부터 참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2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경영 관련 정보를 요청 및 평가하고 있다. CDP 한국위원회는 매년 국내 우수기업을 선정 및 발표하고 있다. 이종환 한전 사업총괄본부장은 "앞으로도 한전은 탄소경영 우수기업으로서,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탄소정보 공개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조기달성에 앞장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로나에도 끄덕없게 한국전력은 28일 나주 본사에서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직원 대피·필수인원 소집 등 '업무연속성 유지 훈련'을 했다. 한전은 지난해 3월부터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등 총 155명이 근무할 임시사업장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 <한전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3181.47 (-33.95)
코스닥	998.27 (-22.74)
금리(국고채 3년)	1.105 (+0.008)
환율(USD)	1113.00 (+2.60)

"안전한 먹거리·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

aT, 비대면 ESG 선포식 가져 (youtube.com/aTwebTV)를 통해 생중계 됐다. 이번 선포식은 안전한 먹거리로 농어민의 행복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김춘진 aT 사장의 ESG 경영 선포와 협력사 참여 서약식, 동반성장(상생협력) 우수 협력사 포상 등으로 구성됐다. /백희준 기자 bhj@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릭 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크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크릭 바로 바로 확인까지!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